

# Today Chart *Bond*

2026. 7. 2

채권 우혜영

whydele@ls-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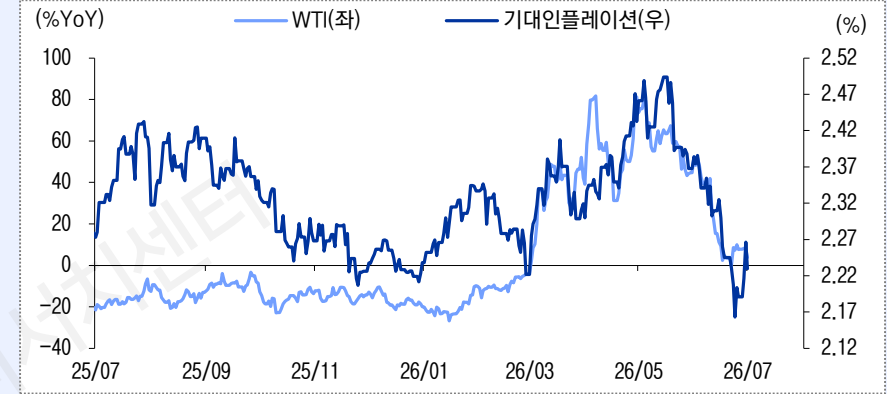
##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물가 안정 목표에 재확인

주요 주제	발언 내용	
이슈에 - 대조표	물가	시 결실을 보기 전이고 물가 안정 업무 중. 이틀간 AI 생산성 관련 열린 생각들을 들었지만, 여전히 물가가 너무 높음. 물가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생각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님. 최근 4주간 기대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위험은 완화됨. 가계·기업·금융시장에서 연준이 물가상승률 목표를 2%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용인할 것이라 기대한다면 실망하게 될 것. 미국의 물가 안정 반드시 이뤄낼 것
	고용	6월 회의에서 노동시장은 안정적(steady)이라 평가. 정책 운영·경제 전반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되는 AI 혁명 초기. 일자리 창출 강력해질 것
대차 대조표	연준에서 4주를 보냈지만, 연준 보유 자산 규모는 더 작아야 한다는 생각엔 변화 없음. 이 문제에 대한 정책의 의미 있는 변화는 공개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충분히 이해될 것. 금융시장이 그 내용을 이해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을 것. 개인적으로, 대차대조표 정책은 재정정책에 가까운 측면이 있음.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주요 도구는 금리 정책이 되길 희망. 전 세계 중앙은행들 관계자들, 통화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려는 의지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큰 안도감을 느낀다. 2008년 GFC 당시 연준이 도입한 여러 정책(대규모 자산 매입과 금융시장 유도 위한 지나치게 많은 정책 신호 제공하는 방식 등)의 부담을 안고 있음	
포워드 가이드런스	회의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심도 있는 토론 진행 예정. 그 이상 드릴 말씀 없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는 실제 경제 상황을 보고 각자가 스스로 판단할 때 가장 바람직하게 작동한다고 생각함	
점도표	최소한(at the very least) 당분간(for a short time)은 점도표 유지될 것	
독립성	연준은 오랫동안 독립적인 중앙은행. 지금도 독립적이며, 그 점에 있어서는 변화 없을 것	
AI 관련	AI 열풍이 CAPEX 열풍으로 연결. 수요 측면에서 이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선 공급 측에서도 보게 될 것. 지금 기업들은 경제의 공급 확대 기대로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이는 통화정책에 엄청난 영향 미칠 것. 지금 당장 판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	
TF 관련	곧 발표할 소식 있음. 다음 주 즈음 외부 전문가들 공개 가능할 것. 실무 경험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해 미국 이외 출신의 전문가까지 경제학 분야의 최고 인재 섭외 위해 노력을 기울임. <b>(데이터 관련)</b> 희망이자 포부는, 향후 9~12개월 내에 연준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실물 경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 가장 싫어하는 데이터 유형은 일반적인 통념(conventional wisd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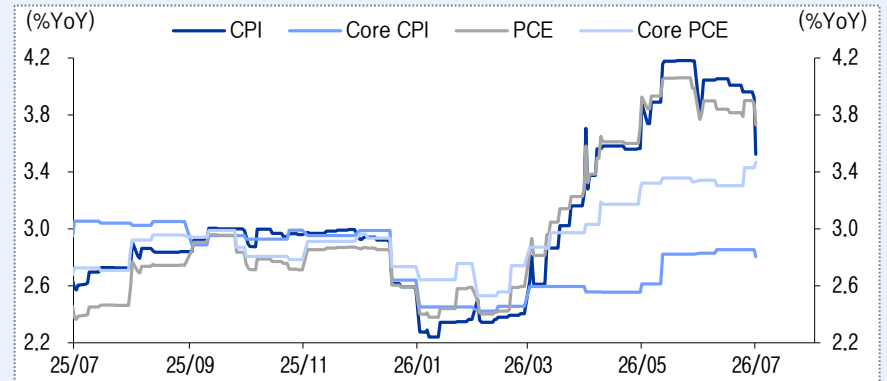
주: CPI는 좌축, PCE는 우축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 WTI 상승률과 기대인플레이션(BEI)



## 클리블랜드 연은 Inflation Nowcast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 우혜영)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